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13차,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바울, 서론 , 사랑, 의로움, 지혜, 히브리서, 계시자, 능력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바울, 서론, 사랑, 의로움, 지혜, 히브리서, 계시자,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운 아버지, 당신의

아들 과 그에 대해 알려주는 당신의 말씀 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가 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우리의 모범으로, 그리고 전에 없이 당신을 계시하는 분으로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과 바울의 성육신의 특별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히브리서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만아들이십니다. 이는 그가 하늘과 땅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좌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17.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는 아이콘, 신의 이미지,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육신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눈에 보이는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육신에서, 아들이 참된 인간성을 자신에게로 취함으로써, 눈에 보이게 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신을 형상화합니다. 그는 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신의 많은 속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로마서 5 :6-8. 이것은 훌륭한 확신 구절입니다. 바울은 확신을 세 가지에 근거합니다.

더 잘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는 말씀에서 구원하는 자들을 계속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들을 확신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확신시키고, 의로움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에서 영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일합니다. 로마서 5:1~11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보장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그것들을 반대로 할 것이라고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3절에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지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3,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성을 낳고 품성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의 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 방법인 말씀, 영,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기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그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의 죽음과의 연합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의 부활과 연합은 나중에 영광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며, 올바르게 반응한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고난이 인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 거듭거듭 응답하면서 견고함, 확고부동함, 인내, 끈기를 배웁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품성을 낳습니다.

믿는 사람이 고난에 경건한 방식으로 거듭거듭 반응하면, 그녀는 인내 또는 꾸준함을 배우고, 결국 그 꾸준함이 그녀를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 뒤에 있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오래 버티면, 인내는 성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약간의 추측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고난은 올바르게 연관되어 인내를 가져옵니다. 주님 안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것은 확고한 성격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희망을 낳을까요? 바울의 생각은 더글러스 무가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저와 동의한다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성을 낳고, 품성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을 증가시킵니다. 그것이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떤 소망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은 말씀, 성령,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3, 4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제 로마서 5:5에서 그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고전 본문인 로마서 8:16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인간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는 구원 안에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이 있고,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의 방법을 보장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확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 삶에서 일하실 때, 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를 포함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는 영의 내적 증거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단어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어는 다른 두 단어보다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충분히 아프거나 충분히 낙담하거나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은 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거의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에 감사하고, 제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이런 죄를 지으며, 기독교인일까요?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경험이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그것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일서 1:8~10,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그 두 가지의 기본은 그의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의 말씀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확신을 쌓습니다. 알겠어요? 6절에서 8절은 그 약속의 예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완전히 해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약할 때,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특히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수류탄에 몸을 던지고 폭발을 맞고 그를 죽이고 전우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그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어지는 구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화했다면, 이제 우리를 정당화하셨으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셨다면, 이제 우리를 화해시키셨으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진노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놀라운 확신의 설명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와 악한 자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육신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요한 1서는 4장에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해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신약에서 화해 제사를 찾을 수 있는 주요 장소입니다.

네 번 나오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가 주요 설명입니다. . 요한일서 4장에 두 번 나오고, 히브리서 2:17에도 나오지만 , 주요 장소는 로마서 3:25과 26입니다.

이 강의에서 앞서 말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이어받아, 바울은 로마서에 대한 주제적 진술을 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1장 18절은 그 주제를 바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은 다른 것의 계시, 즉 인간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주제별 요약입니다. 3장 21절에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낮추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 21절에서 그는 1장 16절과 17절의 주제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별도로 나타났으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바울은 이 의, 이 구원하는 의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선물로 그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 구절에는 속죄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구속은 하나님께서 피의 대가, 즉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속박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에 따른 자유의 상태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설교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속박, 영적 속박, 대속물, 그리스도의 죽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 존 스토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기에 네 번째 주제를 더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사신 그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끝에서 보듯이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속을 탐구하지 않고, 그저 언급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주제, 즉 속죄와 화해를 탐구합니다.

로마서 3:24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화해 제물로 내어놓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그가 신성한 관용 가운데서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그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6-8,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며, 우리는 이러한 화해 본문, 특히 이 본문, 주요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관용을 통해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희생 제도를 통해 참 숭배자들은 동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에 근거하여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실제로 죄에 대한 최종적인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러한 각각의 희생으로 자신에게 IOU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는 일을 정리해야 했고, 자신의 정의를 처리해야 했으며, 사실,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일이며, 그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진노를 하나님-인간으로서 자신 안에서 짊어지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유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형벌에 해당하는 진정한 고통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때때로, 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에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정죄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 장이나 로마서의 세 장을 읽어보면, 그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고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로마서 3:18에서 1:18에서 3:20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한 사람들 말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과 정의를 유지하실 수 있게 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정의롭게 구원하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재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6절). 그분이 정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귀속되고, 고린도후서 5:21, 우리의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께 귀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6-8,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은 참으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로마서 3:25-26, 성육신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상의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7-10. 바울은 기록하고, 이 모든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구절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구원이 있습니다. 화해 직전, 우리의 허물, 곧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려는 계획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제, 이 계획은 구약에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끝 가까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미안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신비의 계시에 따라, 여기 그 생각이 다시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간직되었지만,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언의 글을 통해, 보세요, 글에 있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새롭고 능력으로

오셨지만,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언의 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 유일하신 지혜로운 하나님을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바울은 신비에 대해 말하고, 그것은 오직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계시되었지만, 예언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신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폭력적인 죽음,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지혜이며, 그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그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신 것을 시간의 충만을 위한 계획으로 사용합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통합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예언적 기록에 있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께서 부어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창조물도 회복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구속의 그림 아래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속은 창조물의 구속의 거시적 우주의 축소판이며, 구속을 갈망하고, 여기서 믿는 자들의 화해는, 심지어 에베소에 있는 자들조차도, 하늘과 땅의 화해의 거시적 우주의 축소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희생을 유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희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가져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제사장들에게 진심으로 희생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히브리서 9:15, 그 희생을 유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용서를 가져오셨고, 그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로마서 3:5, 26).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구원하고, 구속하고, 화해시키고, 창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놀라운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증거합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멋진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걸작이며, 신학적인 걸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데 히브리서 1장보다 더 나은 곳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 선지자.

히브리서 1:3, 제사장. 히브리서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 부활, 승천 후, 하늘의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세션, 그분의 앉으심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다루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데, 구약의 역사적 직분은 유형이고, 예언이 실행되고,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한 사람,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결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이 전개되는 맥락의 관점에서 첫 번째 것은 신약

게시가 구약 계시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에서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에 대한 언급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선지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하는데, 히브리서 2:2에서 천사들이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했듯이, 사도행전 7장에서 두 번이나 말했듯이, 베드로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런 인용문을 계속합니다”라고 갈라디아서 3:19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1장의 메시지는 신약 계시의 중보자이신 아들이 구약 계시의 중보자,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2는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19는 그것이 모세의 율법임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는 율법을 주실 때 산 위에 몇만, 몇만 배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두 번, 저는 그 참조를 훑어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사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계시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육신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으로서의 그의 아름다운 이미지. 사실, 그들은 각각 세 가지를 보여 주며 세 가지 진리를 말하지만, 맥락에서 두 가지 모두의 주요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태양이 광선을 내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경우, 한 광선, 한 광채, 한 광채 또는 빛남.

신의 아들은 광채, 태양의 빛남, 즉 신의 영광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광선은 태양의 일부가 우주로 연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의 광채이며, 그는 신이 육신으로 계시된 존재입니다. 또한 태양과 광선 사이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

태양은 모두 길지 않지만 광선은 길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맥락상 대체로 빛남이 보이지 않는 태양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것을 응시하면, 그런 의미에서 눈이 멀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골로새서 1:15와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1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계신, 아버지의 편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 그는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경이롭습니다. 저는 저녁 학교에서 영어 성경, 요한 복음, 로마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같은 것을 말하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공유했을 때, 저는 성경의 통일성에 경이로웠습니다.

요한,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매우 다른 어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8, 골로새서 1:15, 히브리서 1:3에는 같은 진리가 주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두 번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태양에서 발사되어 태양을 드러내는 광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 계시의 중재자이며, 구약 계시를 가져온 천사와 선지자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다른 이미지는 동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은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

1세기 무렵, 가단성 있는 금속을 주사위에 넣고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리면 그 형상이 새겨집니다. 같은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데나리우스 동전은 데나리우스 주사위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평등이 있고, 따라서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사위를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사위에서 나온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맥락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틀에서 데나리우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은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오, 성육신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의로움, 지혜, 자비, 선함, 정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 강의의 마지막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장, 15장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의 신성한 본성의 정확한 각인으로서.

그런데 그 단어는 자연을 뜻합니다. 예수가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교라는 단어는 본질적 본성, 본질, 본성, 존재를 의미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이 자신의 신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성육신을 보여주는 이 장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도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14, 15.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전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택함받은 자들과 비슷한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녀들은 혈육에 참여하였으므로 아들 자신도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가 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본성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피와 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수신자 언어로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혈육을 공유하였으므로 그 자신도 같은 것에 참여하였다. 그것은 성육신에 대한 강력한 진술이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 아니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

그는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는 죽으셨습니다.

오, 맞아요, 그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가르쳤어요. 그는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의 전형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는 살과 피에 참여하여 죽음을 통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악마를 멸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참된 교회로서,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을 정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적들, 세상, 육체, 악마, 죽음, 지옥, 모든 것을 물리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적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은 악마를 파괴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특별 계시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두 가지 일을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육과 피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악한 자를 정복합니다. 원칙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로, 재림 후, 그가 불못에 던져질 때, 계시록 20:10,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는 두 번째 일은 히브리서 2:15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멸성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족, 친구, 교회를 떠나고 싶어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음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장 .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고, 그의 죽음이 악마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가져오는 무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요한과 바울에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이 구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원수, 악마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생 구출할 수 있는 능력. 참으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한 모든 특별 계시의 수단을 볼 수 있지만, 신약에서 재현된 우림과 둠뮌은 볼 수 없습니다. 오, 물론, 그 중 일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봅니다. 특히 신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그리고 가장 특히 우리 강의의 나머지 주제에서. 그리고 그것이 강의의 주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바울, 서론, 사랑, 의로움, 지혜, 히브리서, 계시자, 능력입니다.